

보도자료

2010년 1월 14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제협력관 국제기구담당관실 해외진출추진팀 최준호 팀장(☎750-1760)
해외진출추진팀 정성훈 사무관(☎750-1761)

방통위, 「'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 확정 발표

- WiBro 등 방송통신 5개 전략품목 및 25개 거점국가에 대한 동반진출 역점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1월 14일(목) '10년도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확정 발표하였다.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한정된 자원으로 해외진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방송통신 여건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방통위는 WiBro, DMB, 브로드밴드 등 5개 전략품목, 25개 거점국가에 대한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였다.

1) 우선 **WiBro**는 인도, 브라질, 남아공을 포함한 **15개** 거점국가를 선정하고, 'WiBro 해외진출 분과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대기업·중소기업, 장비업체·서비스업체 간의 동반진출을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2) **DMB**는 이탈리아, 베트남 등 **9개** 거점국가를 선정하고, 유럽→아시아→아프리카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말기 제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DMB** 탑재 **GSM** 단말기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초고속인터넷 망을 전제로 하는 IPTV는 미국, 프랑스 등 9개 거점국가를 선정하고, 선정된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인프라+IPTV서비스+솔루션 등의 동반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4) 방송콘텐츠 부문은 일본, 중국,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으로 거점국가를 선정하고,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쇼케이스 실시 및 IPTV, DMB와의 패키지 진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5) 또한, '10년도에 신규 전략품목으로 추가된 브로드밴드는 미국, 뉴질랜드 등 9개 거점국가를 선정하고, '브로드밴드 분과위'를 신규 구성하여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5개 전략품목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첫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거점국가 역점 진출이다.

방통위는 '09년의 4개 전략품목, 22개 거점국가를 '10년에 5개 전략품목, 25개 거점국가로 확대·조정하였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해외로드쇼 및 쇼케이스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며, 국내 기술의 도입과 상용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컨설팅(타당성 조사 및 파일럿 프로그램) 등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둘째, '산업체 동반진출' 강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이다.

방통위는 해외 동반진출 협력 및 조정 역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방송통신해외진출지원협의회(의장 : 방통위 국제협력관)'를 매월 정례 운영하는 한편, 민·관·협이 최고 책임자로 구성된 '해외진출추진위원회(의장 : 방통위 위원장)'를 구성하여 반기별 운영한다. 또한, 범 부처 해외 동반진출 협력을 위하여 지경부, 행안부 등과 정기적인 협의 및 공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기업 지향 해외진출 '컨설팅 체계' 구축이다.

방통위는 해외진출 정보와 네트워크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해외진출시스템(CONEX)'을 통한 심층·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KOTRA,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의 '해외 정보제공 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On-Off Line**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넷째, 방송통신 'ODA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강화이다.

개도국 전문가 초청연수('09년 324명→'10년 400명) 및 극빈국 방송장비 지원('09년 2억원→'10년 5억원) 등 방통위 ODA 사업을 확대하고, 방송통신 분야의 ODA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KOICA의 ODA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EDCF 자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방통위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는 등 방송통신 개도국 진출을 위한 EDCF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간/국제기구 협력강화'로 해외 진출 기반 확대이다.

방통위는 거점국 정부와 고위급 회담 또는 실무진급 정책 협의회 개최를 추진하여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2014년 ITU 전권 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방송통신 기술을 홍보하여 해외진출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ITU, APT, OECD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 및 국제 표준화 활동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 붙임 > '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 요약 1부

< 붙임 >

'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

1. 수립 배경

- 방통위는 '09년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방송통신 분야 수출지원을 추진
 - WiBro, DMB, IPTV, 방송콘텐츠를 4대 수출 전략품목으로 선정하고, 품목별 총 22개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지원
- 세계적인 방송통신 시장 변화와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해외진출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

2. 방송통신 해외진출 현황

가. WiBro

- 삼성전자, SK텔레시스 등이 18개 국가에 장비를 수출 중이며, KT는 우즈베크에 지분 투자(60%), SKT는 요르단에 망 설계 등으로 진출
 - WiBro 장비 및 단말기의 수출은 '06년 370억원에서 '07년 910억원, '08년 2,556억원, '09년 6,916억원(추정치)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

나. DMB

- 본방송 실시 중인 중국('07년), 가나('08년), 노르웨이('09년) 등 3개 국가에 진출 중이며, 프랑스 등 11개국에 시범용 장비를 공급 중
 - 이동전화 단말기를 제외한 내비게이션, PMP 등 DMB 수신기 수출은 '08년 2,105억원에서 '09년 3,110억원(추정치) 수준으로 증가

다. IPTV

- 셋톱박스과 솔루션을 중심으로 아시아(4개국), 미주(2개국), 유럽(4개국) 등 총 10개 국가에 진출 중
- 전체 셋톱박스 수출은 '08년 1.5조원에서 '09년 1.2조원으로 감소했으나, IPTV용 셋톱박스는 '08년 752억원에서 '09년 806억원으로 증가 추세

라. 방송콘텐츠

- '97년 중국, 대만 등에서 드라마 한류 열풍이 시작되어, '02년 이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를 포함, 미주, 유럽 등으로 확대
- 방송콘텐츠 수출은 '04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05년 1,00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09년에는 약 2,028억원 수준으로 증가

3. 향후 개선사항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네트워크나 브랜드 인지도 부족 등으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희망
- 개도국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산업체 수출금융 지원 강화 등 범부처 차원의 공조 확대 필요
- KISA의 「방송통신해외진출시스템(CONEX)」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운영 중이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심층정보 보장 필요
- 브로드밴드는 IPTV, 방송콘텐츠 등 전략품목 진출의 기반이 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지원 필요

4. '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중점 추진과제

가

'선택과 집중' 에 의한 거점국가 역점 진출

- '09년 4대 전략품목은 브로드밴드를 추가하여 5대 전략품목으로 확대하고, 22개 거점국가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25개국으로 조정
 - 아시아의 인도, 아프리카의 남아공, 남미의 브라질, 유럽의 터키, 대양주의 호주 등 대륙별 핵심 전략국가 진출에 지원역량 집중

< '10년도 전략품목별 거점국가 현황 >

전략품목	거점국가(총 25개국)					
	아시아(7)	미주·대양주(6)	아프리카(3)	유럽(5)	중앙아시아(2)	중동(2)
WiBro(15)	인도·베트남 태국·말레이시아	미국·멕시코 브라질·페루	남아공 가나	러시아·터키	카자흐스탄	사우디 이란
DMB(9)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남아공 이집트	노르웨이·프랑스 이탈리아	몽골	
IPTV(9)	일본·태국 인도네시아	미국·페루 뉴질랜드		프랑스·터키	몽골	
방송콘텐츠(12)	일본·중국 태국	미국·멕시코 브라질·호주	남아공	러시아·터키	카자흐스탄	이란
브로드밴드(9)	중국·인도 베트남	미국·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프랑스		이란

- 업체수요, VIP 순방, 국제행사(남아공월드컵)등과 연계하여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로드쇼 및 쇼케이스 실시
- 거점국가에서 전략품목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파일럿 프로그램 추진 등 정부 컨설팅을 강화하여 국내기술의 도입 및 상용화 유도

나

‘산업체 동반진출’ 강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

- 해외 동반진출 협력 및 조정 역할을 주도하도록 업체 최고 책임자로 「해외진출추진위원회(의장 : 방통위 위원장)」 구성·반기별 운영
- 매월 정례 「방송통신해외진출지원협의회(의장 : 국제협력관)」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브로드밴드 분과위’ 신설 등 업체 저변 확대
- 동반 진출 시 시너지가 기대되는 연관 서비스(예:브로드밴드+IPTV+방송콘텐츠)의 패키지화 진출로 진출 국가 상황에 맞춤형으로 대응
 - ※ 대기업·중소기업, 방송통신사업자·제조업체간의 동반진출을 지속적으로 유도
-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과 전략품목의 해외 동반진출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협의 및 공조체제 구축

다

중소기업 지향 해외진출 ‘컨설팅 체계’ 구축

- 「방송통신해외진출시스템(CONEX)」의 심층적,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거점국별 종합적인 시장정보를 제공
 - ※ 5대 전략품목 25개 거점국을 포함, 총 11개 품목, 40개 유망국가에 대한 국가 일반현황, 주파수 할당현황, 사업자 동향, 국내기업 진출현황 등 시장정보 제공
- KOTRA, NIPA(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A(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각 기관별 해외정보 제공 시스템과 CONEX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 정보 제공
- CONEX에 Online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KISA에 해외진출 Offline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

라

방송통신 'ODA 확대' 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강화

- 개도국 전문가 초청연수 확대('09년:324명→'10년:400명), 극빈국 방송 장비 지원확대('09년:2억원→'10년:5억원) 등 방통위 ODA 사업 확대
- 방송통신 분야의 ODA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KOICA에 제출하여, KOICA의 ODA 사업 지원 활용을 확대
- 기재부,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과 협조하여 방송통신 분야 EDCF 지원 확대('09년:505억원→'10년:700억원 수준) 등 금융 지원 강화
- 유상원조(EDCF) 자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기재부장관)」 위원으로 방통위의 참여 추진

※ 기금운용위원회 : 외통부장관, 지경부장관, KOICA총재, 수출입은행장 등 12인

마

'정부 간/국제기구 협력 강화' 로 해외 진출 기반 확대

- 거점국 정부와 고위급 회담 또는 국장급 정책 협의회 개최를 추진하여 협력관계 강화 및 정책정보 조기 지원(국제회의 적극 활용)
- '14년 ITU 전권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10.10월)하고, G20 정상회의 ('10.11월) 시 방송통신 서비스 시연, 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
-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 확대 및 국제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ITU, APT, OECD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및 입지 강화

※ '09년 현재 ITU에 의장 2명, 부의장 12명, OECD에 부의장 5명 진출